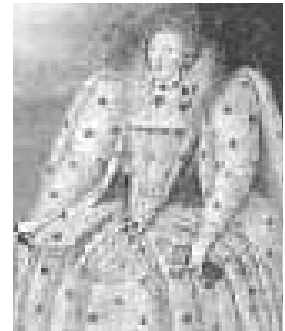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하고 북아메리카와 인도 등지에 대규모 식민활동을 하는 등 많은 업적을 이룬 엘리자베스 1세

주장환 |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지난 5월호부터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인 주장환의 「인류의 CEO, 이것이 다르다」를 연재하고 있다. 태초의 인류가 역경을 극복하고 이 땅에 자리잡은 독특한 경영이론에서부터, 처칠, 케네디, 주원장, 카네기 등 인류를 이끌어간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경영학적 관점에서 추출하여 오늘날 우리 기업인에게 필요한 새로운 CEO관을 제시해주고 있다.



몇 년전, 대영제국의 발판을 굳힌 엘리자베스 1세의 일생을 그린 영화 <엘리자베스>에서 동명의 주인공역을 맡은 케이트 블랑켓의 요염하고도 차가우며 깊이 있는 연기에 빠졌던 적이 있었다.

특히 조셉 파인즈(터들리역)와 유배지에서 사랑에 빠지는 장면은 케이트의 아름다움을 영혼으로 이끌어 내는 듯 했다.

음모와 숙청이 판치던 16세기 궁중 역사를 추리적 기법으로 풀어내 내가 알고 있던 당시 상황과 좀 달라 새로운 흥미를 자아내기도 했다.

<천일(千日)의 앤>이라는 영화도 생각이 난다. 중학교 시절 봤던 까닭에 비참한 최후를 마친 왕비 앤(엘리자베스 1세 어머니)역으로 나왔던 제느뷔 브비졸드의 참혹하리만큼 아름다웠던 모습만 어른거린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엘리자베스의 열혈 팬이다. 그녀는 <위대한 CEO 엘리자베스 1세> 같은 책을 탐독하면서 엘리자베스 1세를 사랑하게 되었다. 아마 처지가 비슷해서이리라.

박근혜 대표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어려서 고생을 많이 했다. 음모도 있었지만 잘 참아내 사려 깊은 지도자가 됐다. 자기가 겪어 봤기 때문에 남을 배려할 줄 알았다. 늘 관용의 정신을 갖고 합리적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대영제국을 만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냉철하면서도 부드러운 이미지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기에 오늘날 사가들이 그토록 두둔하는 것일까?

뉴욕타임즈가 지난 1천 년간 가장 탁월했던 지도자로

엘리자베스 1세를 살펴보려면 당시 상황을 알아야 한다. 시대가 영웅을 낳는다는 말이 있듯이 16세기초 유럽은 그야말로 질풍노도의 시대였다.

엘리자베스 1세를 선정한 배경이 무엇일까?

엘리자베스 1세를 살펴보려면 당시 상황을 알아야 한다. 시대가 영웅을 낳는다는 말이 있듯이 16세기초 유럽은 그야말로 질풍노도의 시대였다. 백년전쟁과 장미전쟁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영국은 제후와 귀족세력이 크게 쇠퇴하고 절대왕정시대가 열렸다. 헨리 8세는 앤과 결혼하기 위해 왕비 캐서린과 이혼하려하지만 로마 교황이 반대하자 가톨릭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교회를 직접 관할하였다.

이어 수도원을 해산시키고 그 영지를 몰수함으로써 교회의 권위를 약화시켰다. 그러나 아들 에드워드 6세에 이어 즉위한 여왕 메리 1세는 스페인 왕 필레페 2세와 결혼하여 구교를 부활시키고 신교도를 박해하였다.

메리가 죽자 여왕으로 즉위한 사람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1558~1603)이다. 그녀는 다시 신교로 복귀하고 국왕을 영국교회의 최고 자리에 두는 수장령과 통일령을 제정하여 영국 국교회(성공회)를 확립하였다.

엘리자베스 1세는 가신단을 해체하고 횡포가 심하던 수도원을 묶어놓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빈법을 내놓아 폭넓은 지지를 얻어갔다.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하고 북아메리카와 인도 등지에 대규모 식민 활동을 하는 등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또한 여왕은 문예를 숭상하여 그녀가 다스리던 때에 셰익스피어가 출현하는 등 문예시대를 이루었으며 모직물 공업을 비롯한 산업이 크게 발전하여 당시 유럽 최고의 강대국인 네덜란드를 능가하는 부강국이 되었다.

영국의 절대주의는 일찍이 헨리 8세 시대에 확립되어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절정에 달한 셈이다.

그럼 뛰어난 리더로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덕목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국민이 원하는 바를 알고 붓물을 터주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법률가, 상인, 제조업자 등으로 구성된 신흥 시민계급이 봉건적 특권계급을 대신하여 영국내의 정치적·경제적 실권을 장악하도록 길을 열어 줌으로써 이들의 지지를 얻고 근대화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전국토의 30%에 이르는 토지를 소유하고 사치스러운 향락생활을 하며 군주에 반대하던 수도원을 해산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여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신흥시민계급에게 불하해주었다. 이렇듯 막혔던 붓물을 한군데만 터주었는데도 장원 해체로 생긴 자연 농민층을 중심으로 메뉴팩처가 형성되어 상업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는 경제부흥위주로 국정을 운용을 했다는 이야기이다. 요즘 우리 사회는 돈이 나올만한 공간은 묶어놓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등 억제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무엇인가 해결하려 든다.

벼가 잘되려면 밭논서 붓물을 터주어야 아랫논 모두가 풍년이 들게 되는 것이다.

둘째. 국민들에게 신바람에 불어넣었다. 그녀가 한 유명한 말 중에 “셰익스피어를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셰익스피어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영어에 대한 자부심이며 영어를 세계 공용어로 사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어렸을 때부터 문학 언어, 역사, 신학 등을 좋아했던 그녀는 예술을 사랑했다. 그런 그녀이기에 당시 영국은 〈영국의 르네상스〉라 불리 올만큼 문예적 분위기가 만연했다. 셰익스피어도 그런 의미에서 엘리자베스 1세가 낳은 작가라 할 수 있다.

작품 〈리처드 3세〉는 엘리자베스 1세 때 영국에 지대

엘리자베스 1세는 백성이나 신하 위에 군림하기 보다는 신하들을 자신보다 위에 두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토의해서 결론을 내렸다.

한 영향을 미친 요크가와 랭커스터가의 싸움인 장미전쟁의 최종 단계를 그린 것이 아닌가?

작가 스펜서 식 연(聯)으로 알려진 장편우화시 <요정 여왕(The Faerie Queene)>은 가상의 이야기를 통해 개신교와 청교도 정신을 옹호하고 영국과 엘리자베스 여왕을 찬양한 작품이기도하다.

모든 지식이 경험으로부터 나온다는 경험주의를 내놓은 베이컨도 엘리자베스 시대를 한결 풍성하게 해준 인물이다. 이들 학자·문인들은 실로 그 시대의 산물이라 할 수 있겠다.

엘리자베스 1세는 당시 비참하던 농노들의 삶을 잘 알았다. 그녀는 빈민구제법을 만들어 백성들을 구휼하고 교회의 횡포를 막았다. 그녀는 백성이나 신하 위에 군림하지 않았다. 신하들을 자신보다 위에 두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가능한 신하들과 토의해서 결론을 내렸다.

커뮤니케이션은 리더십의 필수적 요건이다. 협력을 통해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파트너십 관계나 부원들과의 관계 또는 대인관계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뛰어난 리더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을 잘 이용하면 상대방이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의미를 잘 파악해 자신의 의견도 정확히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면에서 상대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엘리자베스의 1세는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녀는 사람을 뽑을 때도 능력보다 품성을 먼저 쳤다. 이는 능력을 중시하는 오늘날 우리 기업들의 풍토와 견주어 볼 필요가 있다. 능력보다 성실성이나 대인관계를 우선시하는 성품 위주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녀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과 가진 자의 횡포를 보면서 품성이 먼저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셋째, 상황 파악을 잘해 미리 변화에 대처해 나갔다. 15~6세기는 개척의 시대였다. 국가는 돈버는 일이 최고의 선이라며 국민들을 독려해 나갔다. 수많은 상인들과 모험가들이 황금의 나라 인도로 가는 항로를 찾아 항해에 나선다.

바르톨로뮤 디아스가 1486년에 희망봉을 돌아 나갔고, 콜럼버스는 1492년에 바하마제도를 발견했다. 이어 바스코 다 가마가 1498년에 인도 항로를 개척하고, 마젤란이 1521년에 세계일주를 하던 그런 시대였다. 하루하루 변화무쌍한 나날들이었다.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폭풍전야의 시기였던 것이다.

한 나라의 성공을 좌우하는 변화는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일어난다. 조직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생존을 위한 싸움에서 유연하고,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조직이라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엘리자베스 1세는 그런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녀가 여왕에 오르자 스페인의 펠리페 2세가 청혼하였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나는 이미 국가와 결혼했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당시 세계 최강자인 펠레페 왕의 청혼을 거절한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만만찮다는 징표였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더욱 과감하게 나아갔다.

스페인의 해상 활동에 탄지를 건 것이다. 해적들이 식민지에서 스페인으로 보석과 재화를 수송하는 스페인 배를 약탈하여도 팔짱만 끼고 있었다.

당시 유명했던 드레이크라는 해적은 “스페인 왕의 수염을 태워버린다”며 스페인 선박 수십 척을 침몰시켰다. 그러나 엘리자베스1세는 모른 채 일관했다.

오히려 그녀는 당시 스페인의 속령이었던 네덜란드 독

북아메리카 최초의 영국 식민지 이름을 <버지니아(Virginia)>라고 지은 것도 자신이 버진(Virgin/처녀)이었음을 강조하려 함이었으리라.



립 운동을 은근히 지원하였다. 네덜란드와 손을 잡고 변화를 이끌어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임진난 이후 명나라와 후금사에서 고민하던 광해군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장면이다.

영국은 스페인 무적함대를 격파함으로써 네덜란드와 함께 세계의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영국은 이 승리를 계기로 국력이 신장되어 식민지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이후 300년간 영국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기초가 무적함대의 격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녀는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변화에 대처하고 세계최강의 스페인 함대와 일전을 불사함으로써 배수의 진을 쳤던 것이다.

넷째, 민심을 잘 알았다. 1588년 스페인 무적함대와와의 전쟁 때 그녀는 직접 갑옷을 입고 병사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다. “내 몸은 비록 연약한 여자이지만 마음과 용기는 영국 왕의 것이다.”

이 전쟁은 국민들의 애국심이 승리의 요인이었다. 엘리자베스1세의 행동에 감동한 국민이 스스로 모금을 해서 군자금을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국민들은 그녀를 <훌륭한 여왕 베스>라고 불렀다. 그녀가 재임하는 동안 영국민은 가난하지만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인간이 무엇이며 인권과 자유가 어떤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영국의 세율은 유럽에서 가장 낮았다. 여왕의 세금정책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알아서 내라는 것이었다. 후세 사학자들이 말하는 <즐겁고 명량한 시대>였다.

엘리자베스 1세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미지를 잘 만들어 간 인물이었다고 할 수도 있다. 처녀로 일생을 마친 그녀는 펠레페 왕의 청혼을 거절함으로써 성스러운 이미지를 구축했다.

북아메리카 최초의 영국 식민지 이름을 <버지니아(Virginia)>라고 지은 것도 자신이 버진(Virgin/처녀)이었음을 강조하려 함이었으리라.

기업이미지는 “사람들이 그 기업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그런데 기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사실과 다를 수 있다. 뛰어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기업이미지 때문에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때문에 대중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만드는 것은 이미 성공의 반에 다다른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엘리자베스 1세는 대단한 <광고쟁이>인 셈이다.

엘리자베스 1세의 덕목은 더 있다. 참고 견디는 인내, 관용과 배품 등이 그것이다. 또 사가들이 비난하는 우유부단함 등 단점도 가졌다.

그러나 1603년 3월 24일,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영국민들의 모습을 상기한다면 단점보다는 그녀의 뛰어난 이 훨씬 찬란하게 우리 가슴에 비친다.

역사학자 존 스토우는 그 날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사람들이 왕실 의복을 차려 입고 관속에 누워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 곳곳에서 한숨소리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이전엔 본적도 들은 적도 없는 그런 광경이었다.”